

제 9장 제국과 아나키스트: 가네코 후미코와 박열 I

◆1교시 : 가네코 후미코(金子文子)와 박열 1

▲가네코 후미코에 대한 인식



이 책이 기존의 가네코 후미코의 연구성과를 집대성하고 있어요. 가네코 후미코에 대한 자서전, 일본에서 이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 등등이 정리되어 있어요. 한국어로 출판되기 전에는 2003년 출판되었는데, 일본에서는 1996년인데, 재판기록이 길어요. 가네코 후미코와 박열의 경우, 일제에 잡힌 후, 재판과정에서 투쟁을 하죠. 천황제를 중심으로 일본의 억압체제가 어떻게 짜여져 있고, 알리고, 저항하는 이유죠.

재판기록들이 남아있는데, 진술서, 판사와의 대답, 일본어로 된 것이어서, 보통사람들은 자세하게 알 수 없었는데, 일본사람들도 몰랐죠. 아나키즘이 일본에서 복원되지도 않았고, 박열이나 가네코 후미코의 경우 그 당시 대역죄인이다 하면, 일본 형법에서는 가장 큰 죄였죠.

일본 형법, 패망한 이유로 바뀌었을 텐데, 메이지 유신 이후에 만들어 놓은 것을 보자면 천황과 천황의 일족들에 대해 위해를 가했거나 미수, 시도의 경우에도 사형이에요. 일본에서도 서양의 헌법을 베껴서 만들었는데, 사법제도도 3심으로 만들었는데, 대역죄는 1심밖에 없어요.

처음 죄를 다루는 것도 대법원이예요. 불복을 한다면 항소를 하는데, 대역죄는 대법원에서 한 번 다뤄서 유죄가 인정되면 사형이 되는거죠. 가네코 후미코와 박열의 경우 천황에게 폭탄을 던지려고 했다는 인정한 것 자체가 목숨을 걸고 하는 거죠. 나는 사형을 받을 거라는 걸 알아요. 커다란 용기가 필요했을텐데

이 사람들은 천황제 하의 재판제도를 자신의 생각과 실천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죠. 이 책이 나오기 전에 가네코 후미코와 박열에 대한 총체적 인식을 하기 힘들었죠. 한국어로 번역되기 전, 일본어판만 있었는데, 일본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구해서 공부를 했죠.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워낙 소재자체가 매력적이어서 관심을 끌 만한 소재죠. 일본의 여성이, 조선의 남성을 사랑해서 같이 연애, 동거, 결혼하고 그러면서 천황제라는 것이 사실 한국의 입장에서 일본을 싫어하는 마음이 투사될 수 있다는 거죠.

충무로에서 시나리오 작업을 한다, 어떻게 태어났으며 갖게 된 배경, 등등 민족주의적 시각을 떨쳐버리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미로운 호기심의 대상만은 아니었던 것 같다. 왜 이런 행동에 나서게 되었는지, 120분을 1회 2회로 나누어서 봤더라구요.

▲가네코 후미코에 관한 시

KBS에 구할 수 있어요. 책을 읽는게 도움이 될텐데, 가네코 후미코의 시를 같이 들어볼게요. 생각을 적은 시인데요.

가네코 후미코 - 김혜영

자명고를 찢는다
둥둥 울음 우는 목소리
낙랑공주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1923년 붉은 태양처럼 빛나던
일본 천황을 암살하려 한 혐의로 구속된
아나키스트 박열과 아내 가네코 후미코의
오래된 사진을 신문에서 발견했다

소파에서 한 쌍의 잉꼬처럼
박열의 품에 안긴 가네코 후미코는
행복한 표정으로 책을 읽고 있다
박열은 가네코의 가슴에 한 손을 얹은 채
느긋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있다

그녀가 읽고 있는 책은 무엇일까?
마르크스의 자본론일까
아니면 하이쿠 시집일까

1926년 감옥 독방에서
가네코 후미코의 시체가 발견되었다
부드러운 그녀의 가슴은 돌처럼 굳어버렸고
텅 빈 눈동자와 일그러진 입술
자살이라는 소문이 있었지만
타살이라는 소문도 있었다

슬픈 시체
아버지의 나라를 배반하고
천황을 살해하려던 마녀의 몸에서
향긋한 벚꽃이 피어났다

가네코 후미코의 시체는
박열의 고향인 문경에 묻혀 있다
무덤에서 걸어 나온 후미코가

동경대학 도서관으로
걸어간다

국가, 법, 감옥, 사제, 재산, 계급이 사라진 세상!
가네코 후미코가 연분홍 기모노를 입고
허공을 나비처럼 날아다녔다

난 일본 제국의 아나키스트였어
아무도 날 검열할 수 없었어
자유의 날개를 가진
날 꺾을 수 없었지

사랑하는 박열의 품에 안겨
꽃노래를 부르며 책을 읽던 그녀가
봄비를 맞으며
나의 서재를 다녀갔다

아나키즘에 관심 있었던 시인들이 많이 있어요. 일제에 활약했던 조선의 시인들, 1920년대 창작했던 사람들은 아나키스트들, 사회주의자들도 있는데, 아나-볼 논쟁, 그런 논쟁을 했던 사람들 아나키즘에 기반한 예술가들, 볼셰비즘에 기반한 예술가들이 논쟁을 벌였죠.

김수영도 아나키즘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죠.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겠죠. 좌익 예술가들은 많았는데, 그 중 아나키들도 있었고, 알려지지 않은 경우도 있고, 발굴작업도 필요하죠. 시 평론은 활발하게 행동을 했죠.

▲가네코 후미코의 성장 배경

김혜영이라는 시인은 아나키즘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데, 가네코 후미코와 관련 이야기가 책, 드라마로도 제작되고요. 내용 자체가 매력적인 부분이죠, 가네코 후미코의 경우는, 동아시아 아나키스트와는 달리, 왜냐하면 동아시아 아나키스트의 경우, 남성, 부유한 출신, 학생, 귀족, 양반, 사대부 출신이 많았는데, 그들과 달리, 가네코 후미코는 다른 성장배경을 가졌어요.

어렸을 때 무적자라는 이유만으로 아버지가 자신의 호적에 넣지 않았다. 학교에서도 출석을 부르는데 가네코 후미코는 출석을 안불러요. 나중에 왜 안부르냐 하니, 너는 무적자다, 너는 공식적으로 학교에 다닐 수 없다. 버려진 아이였죠. 공식적 교육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차별이 뭔지 태생적으로 배웠죠, 다른 아나키스트들과 달랐던 것이죠.

조선과 중국은 반일 사상에 많은 비중, 반제국주의의 특징을 가졌는데, 가네코 후미코의 경우는 일본출신이라는 점이 달랐고, 관심을 기울이게 했던 점이고, 여성이라는 점, 남성 아나키스트들이 얘기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 자기의 직접적 억압으로 느낀 것을 많이 했죠.

당시 ана키스트들이 가지고 있었던 타도대상, 천황제를 중심으로 한, 위계적인 질서, 거
기서 비롯된 억압, 적극적으로 맞서고, 당당하게 감옥에 가서 전향을 거부했다는 점, 판사가
가네코 후미코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왜 일본에 태어난 일본의 딸이 왜 천황제를 무너뜨리
려하느냐, 다시 마음을 고쳐먹으면 대역죄는 안주겠다.

일곱 번에 걸쳐서 그랬는데 가네코 후미코가 그때마다 의연하게 당당하게 헛된 것 그만해
라고하며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굽히지 않겠다고 하고,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
고, 1923년에 감옥에 잡혀 들어가게 되었죠.

3년여 동안 판사가 회유작업도 하고, 그런데, 1926년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가 대역죄로
유죄를 선고받죠. 유명한 일화가 있죠. 박열의 경우 조선인이었고, 가네코 후미코도 옥중에
서 결혼을 했고, 계속 동거했지만, 박열의 경우 한국에서 독립투사로 인정하고, 우상화작업
을 거치죠.

▲가네코와 박열의 사상적 차이

박열의 경우 반일사상, 허무주의적 질계 바탕에 깔려있는 ана키즘과 민족주의, 가네코
후미코는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지점, 박열이 더 허무주의적이면 가네코 후미코는 허무주의
가 없었죠. 천황제를 공격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폭탄 사용해서 천황 일가가 모
여 있는 곳에 터트리면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천황제를 없애려는 노력을 할 것이다.

실제로 폭탄 입수 계획을 세우는데 가네코 후미코는 다른 식으로 천황제와 맞설 생각이었
는데, 박열이 폭탄사용계획을 알고는 내가 가려는 길과는 다르다는 것에 혼란을 느끼죠. 자
신이 폭탄을 터트리는 행동에 동의를 하는가에 자문하죠.

가네코 후미코는 허무주의적 경향은 덜 하죠. 허무주의는 존재들의 절멸을 추구하는, 천
황의 신하들, 지배세력들, 군부대신들, 자본가들과 어울리는 사람들을 타도대상으로 했다면
가네코 후미코는 선전과 각성에 중점을 두었죠.

박열은 더 허무적인 경향이 있었죠. 반일이라는 측면, 반제국주의라는 측면이 약했다고
볼 수 없고, 훨씬 더 급진적이 될 수도 있죠. 박열의 경우는 거리낌이 없었으니까요.

◆2교시 : 가네코 후미코 와 박열 2

▲박열의 ана키즘 경향

재판과정에서, 자기는 조선인이므로 공정한 재판을 위해 4가지 요구사항이 있다. 재판관은 천황의 대리인이고, 나는 조선의 대리인으로 동등하므로 재판관이 법복을 입으면 나도 조선옷을 입겠다. 너가 높은 곳에 앉으면, 나도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재판을 받겠다고 하죠.

경향적으로 보면 허무적 경향은 별로 없었죠. 이름이 드러난 사람들 가운데, 박열이 대표적이고, 어울렸던 사람이 그런 경향이 있는데, 오히려 ана키즘의 유형들이 있다고 할 때, 개인주의적 ана키즘인데, 여러 가지 사상적 뿌리가 있고 사람마다 다르죠.

개인적 ана키즘을 만든 사람은 요한 카스트로 슈미트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부터 비롯된 경향, 크로포트킨이 만든 ана코코뮤니즘, 노동자에 기반한 ана코생디칼리즘과 달리 개인적 ана키즘은 허무주의와 친밀한 연관성을 보인다.

개인적 ана키즘의 출발은 나의 존재와 국가의 존재는 양립할 수 없고 충돌을 일으키므로 조화를 일으킬 수 없다는 명제가 출발이에요. 대부분 ана키즘은 개인의 자유를 중요하다고 하는데, 개인적 ана키즘은 모든 것보다 중요한 위치에 개인의 자유, 식민지 상황에서 그런 영향을 받았죠.

조선의 ана키스트들은 개인적 ана키즘 말고 다른 것도 많이 받아들여요. 이회영, 신채호 처럼 크로포트킨 주의자가 대부분이었죠. ана키스트들이 일제에 넘어간 뒤에 중국으로 간 사람, 조선에 남아서 활동했던 사람, 일본에서 활동한 사람으로 나눌 수 있다면 박열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 흑우회나 불령사는 개인주의적 경향이 많았던 사람이죠.

호랑이 굴에 용의 아가리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므로 격렬한 활동을 했죠. 계속 오랜 시간이 걸리고 치밀한 시간이 걸리는 것보다 금방 표시나는 것에 집중했죠. 일본에 있었던 재일 유학생 출신이라는 점, 일본에 있던 조선인들이 그런 경향을 보였죠.

▲박열의 재판과정

요구조건을 내걸었던 것이, 나는 당당하게 재판장과 동석에 앉겠다. 나는 조선어를 사용하겠다 그러니 통역관을 대 달라, 그러면서 박열은 반말을 하죠. 재판장 수고했네, 니가 아무리 그래도 내 생각을 바꾸지 않겠네, 이런 식으로 했고, 한국의 민족주의자들에게는 이상화하기에는 좋은 소재죠.

박열은 민족주의 경향이 강하게 있었지만 해방 후의 우익 민족주의자들과는 다른 출발을

보였는데, 감옥에서 오랫동안 잡혀있었죠. 1923년에 관동대지진이 일어나고, 9,1일에 지진 후 일본에서 사회혼란이 대두되니까 계엄령을 내리죠. 조선인들의 방화, 약탈, 우물에 독을 푼다는 등등, 신문보도로 지진 이후의 사람들의 여론을 조작하는데 기여하죠.

희생양이 필요했죠. 사회가 불안하니까 조선인들이 죄를 저질렀다, 박열이나 가네코 후미코 경우 요시찰인물 1호라는 대상이었죠. 주거가 불안정하다고, 사실은 불안정하죠. 양죠. 그런 핑계로 잡아갔죠. 불령사, 불령은 뻔뻔하다는 것인데, 조선인들을 일본의 말을 안듣는다고 불경선인이라고 했죠. 일제가 만들어낸거죠.

가네코 후미코와 박열은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겼죠. 모임도 많이 만들었는데 1923초 쯤, 불령사라는 것을 만들어, 또 다시 활동을 하는데, 비밀 결사조직은 아니었고, 개인적 아나키즘을 공부하는 공개조직이었는데, 당시에 법에 따라, 비밀결사를 만든건 법에 저촉되는 것이어서 처벌을 받는 것이었는데, 일본 재판부에서 그들이 불령사 회원임을 알게되고 그들의 활동이 아나키즘에 기반했다, 그래서 비밀결사로 일본에서 봤죠.

회원들을 다 잡아가요. 20명 정도, 누가 회원인지 몰랐던 경우도 심문해서 사실을 근거로 잡아들이죠. 1923말부터 진술을 듣게 되는데, 불령사동인들이 폭탄을 입수하려는 계획을 세웠다는 진술을 하죠.

일본 지배계급에서는 깜짝 놀랄 일이죠. 폭탄이 나오니까 잘 됐다. 엮으려고 회유하고, 나중에 보니까 박열을 비롯한 몇 명이 천황의 아들, 1923년 결혼식이 있었는데, 다 모이겠죠. 여기서 폭탄 터트리면 가장 좋은 1923년 가을, 마침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도 전에 관동대지진으로 예비검속으로 잡혀가죠.

박열이나 가네코 후미코의 경우 한국인 민족주의자 입장에서 매력적인 아이템이죠. 가네코 후미코의 경우 감옥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하고, 박열의 경우 9월 2일 잡혀서 1945년 후까지 감옥에 있죠. 연수로 따지면 22년이 훨씬 더 지났죠. 세계 최장의 장기수로 박열이 있었죠.

▲일본 패망후 박열의 행보 1

일본 패망 후 정치범들은 석방이 되요. 점령군으로 미군이 들어와 석방시키는데, 박열은 석방이 안된다. 일본 당국에서 애는 대역죄인이다. 일제 패망과는 상관없이 천황제 반대이므로 출옥을 시킬 수 없다고 버티죠.

천황제 자체가 전쟁을 일으키고 멸망을 가져온 원인이므로 감옥에서 내보내지 않을 수 없어서 1945년 10월에 출옥해요. 1930년대 말 전향하는데, 민족주의자 입장에서는 영웅이죠. 한국의 안중근 열사처럼, 박열이 같은 위치를 점하고 있었죠.

이승만의 경우, 대한민국 초대 장관의 각료자리를 주겠다고 했는데, 그때 일본에 있던 조선인들이 갈리죠. 사상적 경향에 따라 북조선의 조총련계열, 남한의 민단으로 나뉘죠. 박열

의 경우 민단의 초대회장이 되죠. 안타까운데 현실이죠.

한나라당이나 조선일보보다도 동률의 우익사람들인데, 그쪽 사람들의 중심으로 만든 것이 제일 조선인 거류민단이 만들어지고 박열이 딱 나오니까 저 사람은 천황제에 반대해서 일제의 희생양이자 조선의 영웅으로 그 자리에 오르죠.

박열을 동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오랫동안 감옥에 있어서 현실 감각이 부족해서, 적극적으로 우익 민족주의자들과 같은 행동을 했다가 보다는 뭐, 이렇게 됐다는 설명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나키스트중에서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런 길을 걸었다는게 설명이 안되니까 이런 식으로 설명한거죠. 박열은 민족주의 경향이 진하게 남아있었어요. 그런 점에서 신채호의 경우와 다른 길을 걸었죠.

신채호에게 가지고 있던 생각, 민족주의자로 출발했지만 시대적 영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나키즘을 택했다는 생각, 똑같은 사고방식을 박열에게 투여한거죠. 아나키즘적이고 허무적인 극단적인 행동방법을 택했지만 천황제를 반대한 것은 조선민족을 원한거였지, 천황제 자체를 반대한 것은 아니었죠.

◆3교시 : 가네코 후미코 와 박열 3

▲패망 후 박열의 행보 2

박열 경우 ана키스트라는 지점이 민족주의 성향자체를 길게 바탕을 하면서 ана키즘을 받아들인거고, 신채호와 다른 사람들의 경우는 민족주의에서 ана키즘으로 변모를 하게 된 거죠. 박열은 전향을 하면서 ана키즘의 활동은 끝났다고 보는거고, 이후의 활동은 ана키즘과는 관계가 없죠.

일본에 남아서 3년동안 민단활동을 하다가 1948년 한국에 돌아와요. 이후 6.25가 터지죠. 박열이 서울에 있었는데 며칠 후 북쪽에서 군대가 며칠 만에 침략을 하죠. 4, 5일만에 북한군에 납치가 되요.

박열의 경우 반공주의를 하나의 사상의 기본 축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변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감옥에서 나와서 민단의 회장이 되고 이승만과 함께 어울리고 건국에 있어서 공을 세운 사람으로 인정될 수 있었던 이유가 ана키스트들은 그 당시 공산주의 반대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죠.

박열은 민족주의를 기반에 깔고 있는 사람인데, 반공을 외치고 있었던 것을 자신의 신념으로 삼았고, 감옥에 있다가 우익에 휩쓸려 들어간게 현실적 감각이 떨어졌다고 보는 입장은 ана키스트들이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반공주의적 경향을 바깥에 있었던 ана키스트들은 나름대로 발전시켰지만 박열은 고립되었고, 반공사상을 자신의 신념으로 가지고 갔다고 본 거죠.

1945년에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익에 휩쓸려가다가 남북이 되는 것을 겪었다고 설명하는거죠. 박열의 경우, 현실감각이 결여된 사람으로 볼 수 있는가는 의문이지만 ана키스트들이 반공주의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많은 ана키스트들이 가지고 있던 것이고요.

감옥에 갇혀있으면서 일제 입장에서는 유순하게 다룰 수 있는 요인이었던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공산주의자들이 특히 불세비키, 소련의 명령을 받아 ана키스트들이 목숨을 잃는데, 저들은 우리랑 같은 사회주의자들인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인줄 알았는데 배신당했을때 느끼는 실망감이 크다고 볼 수 있죠.

한국에서도 진보진영에서 정파들로 나누어 싸우는 거 보면 서로의 반목과 질시가 크거든요. 절대 같이 못한다. 서로에 대한 증오는 크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큰 경우도 있고요, ана키스트들과 불세비키들이 그런 관계였죠. 역사적으로 어떤 조건들이나 사건들 때문에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안타깝죠.

조선의 ана키스트들과 공산주의자들이 티격태격하다가 공산주의자들을 암살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지금에 와서 그런 것들을 읽어보면 ана키스트들이 욕을 먹어요. 한국의 좌파운동권이 ана키스트들이 명칭하게 사회주의자들을 죽이기도 했는데,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데,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지 않으면 서로 원수보듯 하는거죠.

가슴이 아프고 박열의 경우 당시 1920부터 사상의 분화로 사회주의와 ана키즘의 대립, 반목을 평생가지고 갔던 사람인데, 감옥에서 나와 남한에서 한 자리를 한거죠. 건국 표창도 받고요. 한국 전쟁 때 많은 사람이 납북되어 평화통일남북교류촉진회 이름은 약간 다른데, 일종의 NGO 같은 거래요. 1950년대예요.

민간단체도 없어지게 되지만 박열이 회장일을 하고 평화적으로 통일해야한다는 것은 민족주의에 기반한 거예요. 1974년인가 북한에서 죽었다고 하는데, 남한에도 알려줘서 그 사람의 항일활동, 구국활동을 높이 평가했는데, 추모하는 행사도 열렸죠.

▲가네코 후미코의 ана키즘 경향

반면 가네코 후미코의 경우, 박열과 달랐던 것은 민족주의에 대한 반감이 내재되어 있었고, 자기는 일본인으로 태어나 일본인으로 살았지만 자신에게 저지른 일본의 나쁜 것들, 20대 초반까지 살면서 여러 가지 때문에 일본에 반대하게 됐다고 하죠.

그 판사가 왜 천황제를 반대해서 폭탄을 던질 결심을 했는가, 후미코의 대답, 일본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다. 여성으로서, 무적자로서, 하층민으로서, 느꼈던 억압들이 자신으로 하여금 자신의 지배체제에 반항심을 갖게 만들었고, 제일 위에 천황제가 있기 때문이다.

가네코 후미코는 투옥 후 전향을 거부하고 1926년에 의문의 변사체로 발견되는데, 역사적 진실은 모르지만 당시 일본 경찰이든 뭐든, 어쨌든 감옥에서는 자살을 했다고 발표하는데, 일본이 죽였을 거다라고 믿는 이유가 피사진이 나와요.

가네코 후미코와 박열의 자백을 이끌어내기 위해, 판사가 회유도 하고 했겠죠. 대역사건으로 엮으려면 폭탄으로 황실가족을 노렸다는 자백을 받아야하는데, 명확하게 천황을 죽이려고 폭탄을 입수한게 아니죠. 박열의 경우 목적이 정해지지 않았고, 폭탄을 손에 넣은 것도 아니죠.

박열은 요시찰 감시대상 1호였기 때문에 폭탄을 가지고 있는 자체가 위험한 일이죠. 항상 미행하고 감시했으니까 보관도 힘들었죠. 폭탄 입수계획은 있었으나 누구를 대상으로 한거냐, 군부대신이나, 황족이나에 따라 법적용이 달라지는데, 황제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했다는 것에서 사형을 내릴 수 있으니까요.

박열의 영웅이 되고 싶어하는 개인적 성격도 박열에게 있었다고 하죠. 판사가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하죠. 너의 대상은 천황을 대상으로 한 거아니냐고 해서 대답을 하게끔 만들죠. 박열이 그렇다 최종은 천황이지만 계획이 만들어지지 않아 아쉽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죠.

그것이 증거가 되어 대역죄가 성립이 된거죠.

▲괴사진사건 1

괴사진사건, 판사가, 자신의 원하는 대답을 이끌어내기 위해 가네코 후미코와 박열을 같이 있게 하죠. 심문을 받으면서 박열이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죄가 적용되는지 알 수 없고, 물어보는 것에 따라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죠.

박열이나 가네코 후미코가 중요시했던 것은, 다른 불령사 회원들, 이 사람들한테 불통이 튀는 것은 막아야겠다고 생각했죠. 주로 나서서 아나키스트 활동을 한 것은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이지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강요해서 불령사모임에 들어왔고, 폭탄입수계획도 전혀 몰랐다. 풀어줘라라고 하죠.

그 과정에서 판사가 박열이나 가네코 후미코에게 잘 대해주죠. 인간적으로 대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본심을 이끌어낼 수 있죠. 같이 있게 만들고, 심문과정도 나름대로 판사가 재량으로 둘을 같이 있게 하고 사진도 찍었어요. KBS에서 방영된 가네코 후미코의 타이틀 사진이 그 둘이 감옥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유명한 사진인데, 가네코 후미코가 책을 들고 있는 사진인데, 일본 열도가 발각 뒤집혀요. 대역죄인인데, 두 명은 잡혀간 날부터 일본 신문에 큼지막하게 나오죠. 일본 입장에서는 조선인들이 대역사건을 저질렀다고 하면 두려움에 빠지잖아요.

